

하필 이때 만나니...



23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 에서 열린 '2017 프로야구 KBO리그' 한화 이글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 앞서 KIA 김기태 감독이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김성근 한화이글스 감독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23일 감독 권한대행 맡은 이상군 투수코치가 숨을 몰아쉬며 그라운드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호랑이 군단’의 부담 배제 원정 3연전이다.

KIA 타이거즈는 23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 파크에서 한화 이글스와 원정 3연전을 시작했다.

지난 4월7일부터 9일까지 안방에서 한화와 시즌 첫 대결을 벌였던 KIA에는 부담 많은 ‘리턴 매치’다. 주말 두산전 싸움이 3연패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팀 한화의 악재까지 겹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험난한 시리즈를 치르게 된 것이다.

23일 프로야구계는 ‘한화발’뉴스로 시끌시끌했다.

먼저 지난 21일 발생했던 한화와 삼성의 벤치클리어링에 따른 KBO(한국야구위원회)의 추가 징계 뉴스가 각종 프로야구 관련 기사판을 뜨겁게 달궜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보다 더 강력한 소식이

KIA, 주말 스윙패 충격 가시지도 않았는데

감독 사의·선수 징계 ‘어수선’ 한화 원정 3연전

전했다. 바로 김성근 감독이 한화 사령탑에서 물러난다는 소식이였다.

지난 2015시즌부터 한화를 지휘했던 김성근 감독은 매년 화제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었다.

그는 부임 초반에는 극적인 승부를 연출하며 한화의 홈구장을 들쭉이게 했다. 그러나 구단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2015년 6위에 이어 지난해에는 7위에 머물렀고, 혹사 논란까지 계속되면서 프로야구의 뜨거운 이름이 됐다.

올 시즌도 예외는 아니었다. 성적 부진과 프런트와의 갈등으로 ‘김성근 논란’은 계속됐다.

김성근 감독은 오간도와 비야누에바라는 ‘빅리거 원투펀치’를 앞세우고도 21일까지 18승25패(승률 0.419)를 만드는 데 그쳤다. 순위는 9위. 여기에 올 시즌부터 선수단 운영 정상화의 역할을 맡은 박종

훈 단장과의 갈등도 이어졌다. 결국 김성근 감독은 SK에 이어 한화에서도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다.

김성근 감독의 중도 사퇴 소식이 한화 선수들과 야구팬들에게는 물론 KIA 선수단에도 깜짝 소식이었다.

KIA 선수들은 이날 오후 숙소에서 진행된 전력 미팅 자리에서 김성근 감독의 사퇴 소식을 전해 들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KIA 선수들도 많이 당황한 분위기였다. 무엇보다 한화가 주중 3연전의 상대팀이기 때문에 사령탑의 부재가 경기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어수선한 주말을 보낸 두 팀의 ‘분위기 수습’ 시리즈였던 이번 주중 3연전은 사령탑 이탈이라는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이목이 쏠린, 부담 많은 시리즈가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화 “김성근 감독 사의 표명” 공식화

김성근(75·사진) 감독의 ‘사의’와 ‘경질’ 사이에서 혼선을 빚은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구단이 “21일 경기 후 직접 사의를 표명했다”고 공식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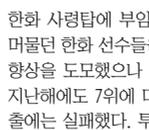
한화 구단 관계자는 23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 파크에서 취재진에게 “21일 일요일 대전 삼성전 종료 후 운영팀장이 김성근 감독직을 찾아가 최근 1군에 정식 등록되지 않은 일부 선수(내야수 김주현, 외야수 박준혁)의 야간 타격훈련 계획에 우려의 뜻을 전했다.

그 자리에서 김 감독이 ‘내일부터 구장에 나가지 않겠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이후 코치진 회의를 소집해 재확인했으며, 그중 관계자에게도 같은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구단 관계자는 “우선 김광수 수석코치에게 (감독대행) 자리를 요청했지만 고사했다. 그래서 이상군 투수코치에게 일단 23일 경기만 감독대행을 맡겼다”고 덧붙였다.

한화는 이날 김 코치를 1군에서 말소하고 정민태 코치를 등록했다. 이상군 코치가 감독대행을 맡게 되면서 공식이 된 투수코치를 채우기 위한 조치다.



김 감독은 2014년 11월 팬들의 높은 관심 속에



한화 사령탑에 부임했다. 만년 하위권에 머물던 한화 선수들을 강훈련시켜 경기력 향상을 도모했으나 2015년 6위에 그쳤고 지난해에도 7위에 머물러 포스트시즌 진출에는 실패했다. 투수 운영에서는 ‘혹사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한화 사령탑에 부임했다. 만년 하위권에 머물던 한화 선수들을 강훈련시켜 경기력 향상을 도모했으나 2015년 6위에 그쳤고 지난해에도 7위에 머물러 포스트시즌 진출에는 실패했다. 투수 운영에서는 ‘혹사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한화는 2016시즌 종료 뒤 1군 사령탑 출신 박종훈 단장을 영입하며 김성근 감독의 영향력을 ‘1군 운영’으로 한정했고, 이후에도 현장과 프런트의 마찰은 계속됐다.

난투극 윤성환-비아누에바

6경기 출장 정지 징계

빈볼 시비로 그라운드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 삼성 라이온즈와 한화 이글스 선수와 코치 등 6명이 징계를 받았다.

KBO는 23일 서울시 강남구 야구회관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리그규정 벌칙내규 제4항에 따라 경기 중 빈볼 또는 상대 선수를 가려해 퇴장당한 삼성 투수 윤성환과 한화 투수 카를로스 비아누에바에게 각각 6경기 출장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한화 외야수 정현석에게도 출장정지 5경기의 징계를 결정했고, 몸싸움을 벌인 삼성 투수 채크 페트리에게는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상벌위원회는 사후 경기 영상 분석 결과 상대 선수를 가려한 것이 확인된 삼성 김재걸, 강봉규 코치에게도 벌칙내규 제7항에 따라 출장정지 5경기에 300만원의 제재금을 물렸다.

한화 외야수 정현석에게도 출장정지 5경기의 징계를 결정했고, 몸싸움을 벌인 삼성 투수 채크 페트리에게는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유소연



쭈타누간

“세계 1위는 내 것”

LPGA 볼빅 챔피언십 유소연-쭈타누간 경쟁...리디아 고 불참

여자골프 세계랭킹 2위 유소연과 3위 리디아 쭈타누간(태국)이 세계랭킹 1위 자리를 놓고 리턴매치를 벌인다.

둘은 오는 26일 미국 미시간주 앤아버의 트래비스 포인트 골프장(파72)에서 막을 올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볼빅 챔피언십에 나란히 출전한다.

둘은 22일 끝난 킹스밀 챔피언십에서 세계랭킹 1위 도전에 나섰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유소연은 현역 세계랭킹 1위 리디아 고(뉴질랜드)와 똑같은 공동10위, 쭈타누간은 공동18위에 그쳐 추월에 실패했다.

셋은 세계랭킹 포인트에서 간발의 차이로 1~3위에 포진했다. 1위 리디아 고와 3위 쭈타누간의 점수차가 0.22점에 불과하다. 한차례 대회 성적만으로도 셋의 순위가 바뀐다. 유소연이나 쭈타누간이 볼빅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면 단박에 세계랭킹 1위가 된다.

리디아 고는 이 대회에 출전하지 않아 양자 대결이다. 리디아 고는 3주 연속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유소연은 그린 적중률 1위를 바탕으로 상금랭킹 1위, 평균타수 1위, 그리고 올해 들어 한번도 톱10 밖으로 밀린 적이 없는 안정감에서 발군이다.

쭈타누간 역시 우승은 없어도 상금랭킹 3위를 달릴만큼 안정된 기량을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작년에 우승을 차지했던 대회다.

올해 준우승 3차례를 차지한 전인지는 다시 한 번 시즌 첫 우승에 도전한다. 전인지는 못지않게 우승 문턱을 부지런히 넘본 허미정과 새 캐디를 시험하고 있는 슈퍼루키 박성현도 주목된다. 매지플레이 퀸으로 거듭난 김세영은 시즌 2승을 노린다.

킹스밀 챔피언십에서 완승을 거둬 4월타 논란을 떨쳐낸 렉시 톰프슨(미국)은 2주 연속 우승을 겨냥해 출사표를 냈다.

/연합뉴스

류현진, 컵스 상대 3승 도전

27~29일 중 등판할 듯

류현진(30·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시즌 3승 도전 상대는 시카고 컵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저스는 24~26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홈 3연전 선발로 클레이턴 커크, 리치 힐, 마에다 켄타를 예고했다.

27~29일 치르는 컵스와 홈 3연전 선발은 미정이다. 3연전에 나설 투수는 사실상 결정됐다. 관건은 순서다.

다저스는 22일 홀리우 우리아스를 마이네리그로 내려보내며 선발진을 6명으로 정리했다. 한 명이 더 선발에서 이탈할 수 있지만, 그 시점은 13연전(24일~6월 8일) 말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류현진은 알렉스 우드, 브랜던 매카시와 함께 컵스 3연전 등판을 준비한다. 3명 중 가장 안정적으로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하는 투수는 우드다. ‘스윙맨’으로 시즌을 시작한 우드는 4월 말 선발진에 진입한 뒤 4일 혹은 5일 휴식을 취한 뒤 꾸준히 선발 등판했다.

우드는 20일 마이애미 말린스전에서 7.1이닝 6피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시즌 4승째를 챙겼고 26일까지 등판 일정이 없다. 미국 ESPN은 우드의 ‘6일 휴식 뒤 27일 컵스전 등판’을 예상했다.

류현진은 19일 마이애미전에서 5.1이닝 7피안타 2실점으로 시즌 2승(5패)을 따냈



다. 그러나 최근 우드의 기세가 워낙 좋아 27일 등판은 내줄 가능성이 크다. ESPN은 조심스럽게 류현진을 28일 선발로 내다봤다.

매카시는 21일 마이애미전에서 6이닝 3피안타 1실점으로 잘 던졌지만, 아직은 회복이 있다. 류현진과 매카시가 동등하게 경쟁하고 있는 터라 앞선 등판 순서대로 28일 류현진, 29일 매카시가 컵스를 상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류현진은 올해 컵스와 한 차례 만나고 전했다. 4월 14일 시카고 방문 경기에서 4.2이닝 동안 홈런 2개 포함 6안타를 내주고 4실점했다.

우리아스가 마이네리그로 내려갔지만 류현진의 입지는 여전히 불안하다. 등판일이 불규칙한 상황도 극복해야 한다. 컵스와 리턴매치에서 호투해야 상황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다.

/연합뉴스

안병훈·왕정훈 US오픈 골프 출전권 확보

안병훈과 왕정훈이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US오픈 골프대회 출전권을 확보했다.

미국골프협회(USGA)는 23일 “22일 발표된 세계 랭킹 상위 60명 가운데 올해 US오픈 출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선수 27명이 올해 US오픈에 출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2일 자 세계 랭킹에서 56위에 오른 안병훈과 59위 왕정훈이 올해 US오픈에 나가게 됐다. 안병훈은 2010년과 2015년, 2016년에 이어 네 번째 US오픈 출전이고 왕정훈은 US오픈에 나온 적이 없다.

이로써 현재까지 올해 US오픈 출전 자격을 확보한 선수는 총 78명으로 늘어났다.

정현, ATP 리옹오픈 16강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68위·삼성증권 후원)이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리옹오픈(총상금 48만260유로) 16강에 올랐다.

정현은 22일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대회 첫날 단식 1회전에서 도널드 영(51위·미국)을 불과 1시간 만에 2-0(6-2 6-3)으로 제압했다.

이달 초 독일 뮌헨에서 열린 ATP 투어 BMW오픈에서 4강에 진출, 2007년 이형택 이후 한국 선수로는 10년 만에 ATP 투어 단식 4강 무대에 오른 정현은 이후 2주

간 국내에서 휴식을 취한 뒤 이번 대회에 출전했다.

정현은 지난 주말 예선 1, 2회전에서 미하일 린저(277위·오스트리아), 강병 알리스(126위·프랑스)를 연파하고 본선에 합류했다.

1세트를 6-2로 비교적 손쉽게 따낸 정현은 2세트 게임스코어 3-3에서 영의 서브게임을 브레이크해 4-3으로 달아나며 승기를 잡았다. 정현은 이날 서브에이스를 8개나 터뜨리며 상대를 압도했다.

정현의 본선 2회전 상대는 토마시 베르디흐(14위·체코)다.

정현은 지난 주말 예선 1, 2회전에서 미하일 린저(277위·오스트리아), 강병 알리스(126위·프랑스)를 연파하고 본선에 합류했다.

1세트를 6-2로 비교적 손쉽게 따낸 정현은 2세트 게임스코어 3-3에서 영의 서브게임을 브레이크해 4-3으로 달아나며 승기를 잡았다. 정현은 이날 서브에이스를 8개나 터뜨리며 상대를 압도했다.

정현의 본선 2회전 상대는 토마시 베르디흐(14위·체코)다.

/연합뉴스